

# 흔들리는 건설업... “자재수급 불안 해소·긴급 금융지원”

### 국토부, 시정서 ‘호남권 건설업계 중등 대응 간담회’ 권역별 첫 회의...중앙·지방정부 위기 극복 방안 논의

광주시와 국토교통부가 중등전쟁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14일 광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토부와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중등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등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과 공사비 상승 등 복합 위기가 지역 건설현장과 민생경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책 공조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부가 오는 17일까

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는 첫 일정으로, 광주·전남·전북 권역이 출발점이 됐다.

간담회에는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정상태 익산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고광완 광주시장 권한대행, 박금화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등 중앙·지방정부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전남도, 전북도는 1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중등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자, 건설업계에서는 권역진 대한 건설협회 부회장과 황인일 광주시회장,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전남도, 전북도는 14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중등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업계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경재 전남도회장을 비롯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건설업 지원 조치를 공유하고, 업계가 체감하는 현장의 애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중등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불안,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사비 구조, 부동산 경색에 따른 금융부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공사비 현실화와 함께 긴급 금

융 지원, 보증료 완화 등 직접적인 부담 경감책을 요구했다.

논의는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구조적 대응으로도 이어졌다. 자재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공급망 관리, 지역 건설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첨단 전략 인프라를 축으로 한 투자 확대 방안 등이 함께 테이블에 올랐다.

중등 변수에 따른 단기 충격을 넘어서 지역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둔 접근이다.

광주시는 그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취득세 특례 확대 등 지방 실정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아울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점검과 정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승문을 틈누는 데 주력해 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 광주도시공사, 에너지밸리·도시첨단 산단 용지 공급

### 복합·상업·지원용지 등 추첨·경쟁입찰 방식 최장 10년 무이자 분할납부...자금부담 완화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와 도시첨단 등 준공산업단지가 공급된다.

14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급 대상은 남구 압촌동·지석동 일원에 조성된 에너지밸리 산단 내 복합용지, 상업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용지와 남구 도시첨단 산단 내 복합용지, 상업용지, 종교용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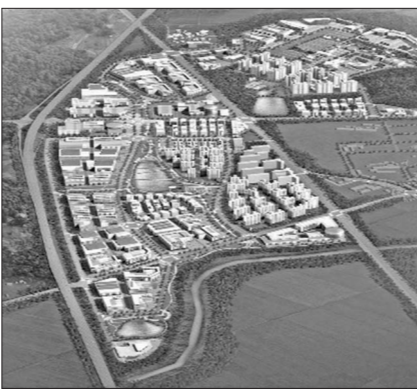
필지 용도에 따라 공급 방식과 입주 자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수요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복합용지는 추첨 방식으로 진행하며, 신청자는 일반 실수요자로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입주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상업, 지원시설, 주차장, 종교용지 등 일반용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 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예정금액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복합용지는 다음달 6일 광주도시공사 1층 분양상담실에서 방문 접수를 진행한다. 이어 7일부터 8일까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입주 심사 및 계약 체결을 거친다.

일반용지 입찰은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7일 오후 4시까지 온비드에서 전자입찰서를 제출받으며, 8일 오전 10시에 개찰을 실시한다.



남구 에너지밸리와 도시첨단 등 준공산업단지

최종 분양 계약은 두 용지 모두 오는 5월 11일에 체결할 예정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입주 기일 및 투자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조건 선택형 대금 납부 방안을 도입했다.

매수인은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뒤, 잔여 대금에 대해 ‘10년

(120개월) 무이자 분할납부’ 또는 ‘5년(60개월) 무이자 분할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납부 약정일보다 대금을 미리 낼 경우 선납할인율을 적용해 금액을 감면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단, 분양대금 연체 시 연 7.5%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된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분양용지 공급은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파격적인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수 기업 유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 관련 세부 자격 요건, 입주 제한 업종, 각종 유의사항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온비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코스피, 종전 기대감에 장중 ‘6000피’ 터치

### 42일 만에 재진입...SK하이닉스 6% 상승

코스피가 14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장중 ‘6000피’를 재돌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1.38p(2.61%) 뛴 5960.00으로 출발해 159.13p(2.74%) 상승한 5967.75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한때 6026.52까지 올라가면서 장중 6000선에 재진입했다.

이는 중등 전쟁 발발 후 첫 거래일인 지난달 3일(장중 고가 6180.45) 이후 42일 만에 처음이다. 당시 코스피는 7.24% 급락하며 5791.91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6000선을 넘었던 건 중등 전쟁 발발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월 27일 6244.13이 마지막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78억원, 1조2559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에 개인은 2조3932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4430억원 매수 우위였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환율도 내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8.1원 내린 1481.2원을 나타냈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주가지수가 동반 상승했다. 지난 1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1.68p(0.63%) 오른 4만8218.25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69.35p(1.02%) 상승한 6886.24, 나스닥 종합지수는 280.84p(1.23%) 뛴 2만 3183.74에 장을 마쳤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가 결정되면서 워싱턴이 심리가 강한 채로 장을 열었지만,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협의하고 있다

는 기대감에 흐름이 뒤집혔다.

국내 증시도 미국발 훈풍에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탔다.

삼성전자는 2.74% 오른 20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말 발표 예정인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며 6.06% 뛴 110만3000원에 장을 종료했다.

양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재) 광주연구원 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14일 광주노동권익센터와 광주지역 노동자의 경제·금융 역량 제고 및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광주연구원-노동권익센터, 노동자 경제교육 협력 노동 상담 연계 생활금융·금융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재) 광주연구원 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14일 광주노동권익센터와 광주지역 노동자의 경제·금융 역량 제고 및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금융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노동권의 보호와 연계된 실질적인 생활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경제·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고, 노동 상담 및 권익보호와 연계한 생활금융·자산관리 교육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피해 예방 교육 지원과 맞춤형 경제·금융 제도 안내 및 상담 연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과 교육이 결합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교육 대상 발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주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문연희 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장은 “노동자의 생애주기와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정찬호 광주노동권익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의 권리 뿐만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경제적 권리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전남도, 무안신협과 함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숫자는 좋은데 왜 이렇게 힘들지...”

### 한은 연구진, 정량적 괴리 지표 개발...민간소비 선행 신호

경제지표는 회복을 말한다. 그러나 체감은 따라오지 못한다. 숫자와 피부 사이,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손운석 과장과 성균관대학교 한희준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학술지 ‘경제분석’(2026년 3월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체감경기와 실물경기 간 괴리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분석 기간은 2003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약 22년에 걸쳐 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서 체감경기와 실물경기 간 괴리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 괴리는 더 깊어지고, 더 불안정해졌다.

연구는 기업경기실사지수(CBSI), 소비자심리지수(CCSI), 경제심리지수(ESI)를 묶어 ‘공동 심리’를 추출한 뒤, 생산·소비·금리 등 실물 변수의 영향을 제거해 순수한 심리 괴리를 측정했다.

이 괴리는 단순한 인식 차이를 넘어, 실제 경제 흐름을 설명하는 변수로 작동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소비자. 체감경기가 실물보다 개선될 경우, 민간소비는 1~3분기 뒤 유의하게 증가했다. 반대로

체감이 위축되면 소비도 뒤따라 움츠러든다. 투자는 반응하지 않았고, 수출도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내수, 그중에서도 소비가 심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셈이다.

체감과 지표가 엇갈리는 이유도 분명했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공식 물가보다 높을수록, 체감경기는 더 빠르게 식었다. 장바구니 물가가 심리를 짓누른 것이다.

여기에 고용 없는 성장도 영향을 미쳤다. 성장률은 유지됐지만 일자리는 따라오지 못했다. 숫자 속 성장이 일상의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계부채 부담도 뺄줄을 수 없다. 금리 상승과 대출 증가가 겹치면서 신용위험이 확대됐고, 이는 소비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정책 불확실성 역시 변수로 작용했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수록 경제주체의 기대는 빠르게 식었다.

시기별 흐름도 뚜렷하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괴리가 작고 안정적이었다. 이후 완만한 낙관 흐름을 보였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양상이 바뀌었다. 괴리는 음의 방향으로 크게 이동했고, 변동성도 확대됐다. 체감은 더 비관적으로, 더 크게 흔들렸다.

이 연구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경제는 더 이상 지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성장률이 반등해도, 체감이 따라오지 않으면 소비는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의 초점은 달라져야 한다. 물가 안정, 고용 개선, 가계부채 관리, 정책 신뢰 회복, 체감을 건드리지 못하면 경기 회복은 절반에 그친다.

지표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체감은 아직 바닥을 더듬고 있다. 경제의 방향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

황해운 기자 nabi@gjdream.com

## 신협-전남도,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체결

### 도서·산간까지 금융 접근성 확대...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

신협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전남도, 무안신협과 함께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와 연계한 전용계좌를 도입해 보조금 집행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무안신협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계좌 개설과 운영을 맡고, 전남도는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일관되게 관리하게 된다.

전용계좌는 ‘보템e’와 연동돼 지정된 방식으로만 출금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임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다.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앞으로 ‘보템e’ 전용계좌 운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범위를 넓혀 지역 기반 공공 금융 서비스 정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윤영채 신협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금융 역할 수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양태 무안신협 이사장은 “지역 금융 기관으로서 보조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금융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